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

기도서 321면 (다해)

제1독서: 창 세 14, 18-20

제2독서: I 고린 11, 23-26

복 음: 루 가 9, 11b-17

순정이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루가 9, 16).

보라 이 마음을...

6월 예수성심성월

인생의 많은 비극중의 하나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 사랑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멀리 가지않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된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보살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건만, 자식들은 몰인정하고 자기 멋대로이며 심술궂기까지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찮은 존재로까지 생각한다. 그들의 부모님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이런 말이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들을 갖는다는 것은 뱀에게 물린 것보다 더 쓰리고 아프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이 가장 쓰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다. 보답을 받지 못하는 사랑은 인간의 비극인 동시에 하느님의 슬픔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의 배반이라는 최대의 슬픔을 체험하셨다. 요한1, 11절의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성서구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묘사해 주고 있다. 자기 나라 백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슬픔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졸곧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반당해 왔고 죽을 위험도 수없이 겪으셨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자기가 배반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거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 기쁨이 줄지에 엄청난 슬픔을 가져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답을 받지 못하는 사랑은 인간의 비극인 동시에 하느님의 슬픔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배반이라는 최대의 슬픔을 체험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통했을까? 가장 충실해야 할 우리들의 불충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에 물린 것보다 더 쓰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다.

예수성심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배은망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 그분의 사랑은 냉담과 배반으로 갚아졌다.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렇게도 보상받지 못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

우리는 6월의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자. 편안하게 헤드리자. 보답 좀 하자.



교회와 민주운동

안 득수 (마리오)

六月은 예수 성심성월이다. 거리와 사회는 온통 외침과 강압통제의 소리로 들끓고 있다. 드디어는 강경진압의 명령에 여섯 명의 고귀한 우리 젊은이를 불태워 죽게 하는 참극을 자초하고 말았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회정의와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강하게 외치는 사제단과 평신도들이 있고, 이분들의 예언적 외침과 행동은 오늘의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이만큼이라도 이루는 데 기폭제가 되었으며 전국의 성당에는 젊은 예비교우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고 빈부격차가 적어지며,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사회보장제도를 다같이 원하며 그런 토대 위에서 조국이 통일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 목표를 ‘나’라고 하자.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의 목표가 ‘나’에서 끝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義」-즉 정의와 해방을 외치셨다. 갖가지 부조리와 不義로 얼매인 민중의 해방과 정의를 외치셨고 또 그 해결을 원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에는 자기 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나’를 외치고 원하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곧 ‘가’로 이어지셨다. ‘가’란 무엇일까? ‘나’가 정의와 해방이라면 ‘가’는 사랑(물과 성령세례)일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재야측에서 사회정의와 조국통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증거하고 계신 한 사제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은

“야! 회장님과는 생각이 같아서도 포인트가 약간 차이가 나네”하시며 고개를 가우뚱 하셨다.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나’지향하고 있고, 정의구현의 사와 증거하는 평신도들이 이를 바침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 사랑하기 때문에 後者는 이 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어야 할 않을까? 前者와 後者가 그제 같다면 그것은 큰문제가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커우리는 불우하고 소외된 민중 함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맛을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여 물과 영으로 다시 내게 하는 일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들과 함께 서는 것이다. 그들 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직자 평신도를 보고 “가톨릭이 편한 종교인 것 같애! 그들이 믿 있는 神이 무엇인지 한 번 물어 보자”고 하는 점을 노려야 할 것이다. ‘나’가 전부여서는 안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쟁취고 나면 반드시 민중은 거기에 세상적 안일과 쾌락을 찾게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 병든형제들은 치유시켜 주시 먹을 것(빵)도 마련해 주셨 이것을 보고 군중은 예수님을 상의 王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상은 내 王國이 아니라고 하시 피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의 첫 목표는 우리들의 肉的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고, 다음 목표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전주교구 평협회장>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그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은 하느님께로 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 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 I 서 4, 8~16)

하느님께서 우리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 31~39)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I 서 4, 8)

소리

어디로 가고 있나요

경하는 신부님. 작년 6월이었죠. 총칼로 전 거머쥔 채 평화적 정권교체 제일인양 외쳐대던 한 장군 호헌조치에 분노, 우리의 국 개헌과 민주화를 외치며 거 나섰습니다.

것은 바로 4·19이후 말없는 국민의 최초의 전국적인 의 시였고 이에 차기 대통령 후 로 정해졌던 노태우씨는 6· 4복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 어느 신문의 한 구석에는 의 한 다방 주인이 너무 기쁜 지 「오늘 차값 무료」라는 표 을 내걸고 좋아했다는 기사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마 대변해주는 기사였죠.

후로 부패 국민의 기대를 산 부수어버리는 야당의 분열, 정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상 이 이어졌고 노태우씨는 투표 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퓨터 조작」 「부정 선거」 운운 켜 외쳐대던 패한 자들의 울분 이미 대세를 뒤집을 수 없는 날 녀트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은 마음속 로야 어평한 일말의 기대를 걸 노태우씨의 6공화국 정치를 켜봐왔습니다.

하지만 김신부님!

술한 친인척의 비리와 수백 명 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5월의 광주, 이땅의 죄없는 지식인을 끌어다 개취급했던 삼청교육대 사건의 해결없이 1년6개월이 흘 러 버렸습니다.

분단조국의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익환목사의 구속은 노태우씨가 7·7선언을 통해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잊지않고 있던 국민을 놀 라게 했으며 이에 걸세라 민생치 안의 증발에 말 한마디 없던 경 찰이 국회의원의 뺨 한대에 이성 을 잃고 집단사표를 제출, 우리를 당혹케 했습니다.

신부님. 이 나라는 정녕 어디로 가는 건가요. 민주화는 과연 가 능하며,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 지나요. 한달에 겨우 10 만원을 가지고 4식구를 봉양하는 19살 소녀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도 되나요.

언젠가 김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땅의 정 치인들은 마음을 비우고 즉 '빈마 음'으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디다. 노태우씨는 이 쪽저쪽 눈치 볼 것 없이 마음을 비우고 난마처럼 얽힌 조국의 실 타래를 풀어가야 합니다.

신부님. 기도하겠습니다.



■ "초남이, 서천교, 초록바위 성역화 사업 시작"

“전주교구 성지 개발위원회(위원장 : 김환철 직무대행)에서는 지난 5월10일 임시회의를 열고 그동안 손을 못대고 있던 초남이 와 서천교 초록바위를 성역화하여 전주 교구 신자는 물론 이곳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참례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서두르기로 결의 하였다.

조운호(요셉.19)가 1866년 12월 23일 매맞아 순교한 곳.

초록바위 : (전주교 건너 서쪽) 나이 어린 역적죄인의 후손은 감 옥에서 키워 나이가 차면 사형을 집행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남종삼의 14살된 아들 명 회(명학)와 홍봉주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한 곳이다.

■ "89성령 쇠신 전북대회"

'89 성령쇠신 전북대회가 많은 성직자 수도자 및 7천여명의 신

한다. 침묵속에 오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겠다.

■ 7백여 꾸르실리스타 그날의 감격 되새기며 새롭게 다짐

꾸르실로 운동 전주교구 도입 20주년기념 울뜨레아가 지난 5월 12일 해성학교 강당에서 710명의 꾸르실로 형제 자매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상갑 주간의 감사의 인사, 박성운 신부의 격려사, 흥현 동 서울대교구 부주간의 축사, 김숙 자매의 신앙체험담, 왕수해 신부의 성직자 강론으로 오전 일 정을 마쳤다.

본당별로 준비해온 도시락과 서신동 성전건립을 돕는 음식판 매장에서 점심을 마친 꾸르실로 수료자들은 김영진 전주교구 김 정순 부주간의 회고담으로 오후 일정을 시작했으며, “그대 나던 날을 항상 기억하라”는 김환철 교구장 직무대행의 미사강론과 김영신 지도신부의 실천표 갱신 예절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성지 개발 위원회 임시회의

— 순례객을 위한 성역화 결의 —

초남이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 부락. 호남 천주교 회의 못자리이다. 1784년 영세 입교한 유항검(아우구스띠노)의 고향이자 그의 장남 유중철(요한) 과 며느리 이순이(루갈다)가 동 정부부의 삶을 살았던 수도장. 치명자산의 6분 순교자들도 1912년 전까지는 이곳에 묻혀 있었다.

서천교 : 남문시장앞 다리. 성

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시내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약 간은 광신적이고 시끄러움을 연 상하는 선입관과는 달리 매우 질 서정연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느 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전 국을 순례하는 주최측에서는 이날 대회가 모든면에서 전국 모든 대 회중 가장 으뜸이었다고 평했다



▲ 전주교구 울뜨레아 20주년 기념행사

숲 정 이 산책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몸과 피니라!

◇...성모의 달이었던 5월,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가장 아름다운 달. 그러나 이땅 분단조국의 5월은 절규와 비탄의 달이 되어 버렸다.

우리 모두 로사리오의 마음으로 이 땅에 성모님의 사랑이 장미향기처럼 퍼져나가 사랑과 평화의 「참삶」이 구현되도록 기도드리자.

◇...5월10일 우리를 정약과 분노로 몰아 넣었던 이철규씨 변사사건은 87년 이한열군, 88년 조성만군에 이어 달갑지 않는 5월의 징크스를 만들어 냈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씨의 사체사진이 시내 곳곳에 나붙어 수

사랑과 평화의 향기는 어디?

사당국의 발표쯤은 골백번 압도하고 남을 만큼 의혹의 불길은 크게 번지고 연일 진상규명의 함성이 시가지를 뒤 덮는다. -진실은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5공 화국 초부터 「의문死」로 남겨진 수십 명의 억울한 영령들의 진실까지도 말이다.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때는 이때다' 싶은 듯 5공과 6공은 굳건한 한 형제임을 알리는 몸놀림이 부산한데, 그 대표적 행동대원이 바로 「합수부」라는 괴물.

이法, 저法, 갖은 악법의 찌꺼기만 모아 에미 예비없이 태어난 「합수부」는 역시 5공초 「그 명성 그 대군」 중 횡무진 활약상을 과시하고 있는데, 글썽 저 오월의 하늘을 찌를 듯한 민 중의 외침이 들리지는 않는지. 「해제! 합수부!」

내과 전문

위상양 내과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글라라)

전주시 고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 병원 4-1225
☎ 자택 75-0034

동양한의원

한 의사 민 병 부 (스베파노)

전주시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 한의원 84-2303
☎ 자택 84-2863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전주오거리(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나정형외과
☎ 74-1123.3-6709

레저와 관광의 첨단 -

종합콘도레저타운

(콘도미니움23평형 1구좌분양중)
●이상적인 별장콘도 한구좌를 마련하셔서 사랑과행복을...

〈홍보실 남여사원 약간명모집〉
홍보실장 박민규 (빅토리아)

전주시 서노송동 632-5
☎ 87-0004, 87-0005

한복

- * 약혼
- * 무용
- * 파티
- * 결혼

고려주단

전주시 고사동 (신혼에식장골목)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 6-1902

레지오 단장직 33년

—함열본당 석종훈 단장—

“사랑의 손길을 널리 펴고 계신 영원의 어머니 마리아. 聖母聖母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옵는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연중 가장 좋은 때, 성모님의 달 5월도 이제 다 저물었다.

益山군 용안면 동지산리 입산 마을에 사는 石종훈씨(79)에게는 이 5월이 더욱 뜻깊다. 성모님께 뜨거운 효성과 사랑을 바치는 레지오 마리아단장으로 33년간을 살아온 그이기에 성모님의 달인 5월이 남다른 기쁨으로 와 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함열성당 레지오 마리아 단장직을 맡고 있는 石씨는 이

지역 레지오 마리아의 산 역사가 고 할 수 있다.

지난 56년 現 함열성당의 본거지인 안대동성당에 레지오의 씨를 뿌린 이래 2년후 京畿道 平澤성당에 레지오를 설립, 10년간 활동했으며 20년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함열성당 레지오 단장직을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주위에서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단장직을 수락했지요.”

다시 고향을 찾을 때는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일념뿐이었다는 石단장은 그러나 그와 같은 하느님 사업에 소홀할 수 없어 20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레지오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이같은 열성을 인정받아 그간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7년 10월 全州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天主教 全州教區설립 5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교황십자훈장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모두 주님의 은총입니다. 늘 성당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귀화시키는 보람에 그저 즐거웠습니다.”



함열본당 레지오마리아의 초석이 되어준 석종훈 단장

성모마리아의 정신인 사랑, 인내, 겸손을 실천하는 레지오 활동을 펴 오는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들이 죽을 직전에서 마음 속에 하느님을 받아 들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곤 했지요.” 이렇듯 진실하게만 살아온 石단장이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부모 때부터 믿는 구교우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만 형님(석종관)은 신부가 됐다.—19세되던 해 같은 신자와 결혼했으나 뜻이 맞지 않아 3,4년만에 별거하고 만 것. 그의 부인은 15년전 세상을 떴고 그는 수십년 간을 혼자 살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이 이미 56세로 아버지 가까이 살면서 일요일마다 혼자 사는 아버지를 뵈러 온다.

논 6마지기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石단장. 그는 「혼자서 외로우시겠다」는 주위의 염려에 세차게 고개를 내 젓는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요십이 (825) 김병오



이름이 있든 없든 사랑을

교구소식

- 故 김재덕(아우구스띠노) 주교님 1주기 추도미사: 일시-1989년 6월5일(오전10시30분) 장소-중앙성당 1부-추도미사(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2부-성직자 묘역참배 *故김재덕 주교님을 위한 연도와 분향은 성직자 묘역에서 있습니다.
- 성체성년 상설교복소 설치: 매주 금·토 오후3시-5시 가톨릭 센터 소성당(체의실) 실시-89년6월2일부터, 치명자산 금요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 초등부 하계연수: 89.6.26-29일(3박4일) 장소-송광제2야영장 대상-초등부 교리교사 내용-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가톨릭교리 신학원) 대집단 레크레이션, 소창 참가비-공문참조
- 중·고등부 하계연수: 89.6.30-7.3(3박4일) 장소-송광제2야영장 대상-중·고 교리교사 및 캠프봉사자 내용-캠프실기(교구프로그램제시), 레크레이션, 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부산교구 발행 학생교리) *참가비-공문참조
- 한마음 한몸 운동 헌혈: 부안 천주교회
- 빈첸시오회 피정(오전10시): 장소-천호피정의 집
-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6월1일(목) 10시-4시 덕진천주교회-미사도구, 묵주, 도시락지참
- 테클라 성소모임(아외): 6월4일 오전10시 성바오로서원(집결지) 준비물-묵주, 도시락
- 전동소년 어린이양의 모후 꾸리아 야외행사: 6월4일 9시 전동성당 집결 지참물-미사도구, 각Pr별로 도시락지참
- 성모기사회 모임: 6월3일(성인) 토요일 10시 효자동성당 청년-오후6시 미사후

호남의 첫 성당

“되 재”

대원군의 섭정이 막을 내리면서 이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다.

신해·신유·병인박해 등 숭한 천주교의 교난을 밀거름으로 신부와 신자들이 흘린 피를 바탕으로 찾은 신앙의 자유였다.

1894년 국내에선 두번째로 호남에선 처음 세워진 되재성당(完州郡 華山면 升 리)도 산골로 숨어들어간 교우들과 그들을 인도하던 외인신부들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지금은 낡은 한옥 스테이트건물(20여년 전까지는 기와집이었다)로 볼품이 없으나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서 처음 종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를 생각하면 규모나 위치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1894년 되재성당이 세워지던 해는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해이다. 그보다 2년전 벌보 우신부가 되재본당의 초대주임신부로 부임, 백석에 주재하다 94년 되재로 옮겨 성당건축을 시작했고 이듬해 초 완공을 본다. 이로써 심산군

곡의 되재성당은 전라도 교회의 북부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우신부는 이 곳 성당의 主補를 성



베드로 使徒는 성바오로로 정했다.



되재성당의 옛모습 전라도 북부지역을 관리했던

여러차례의 박해를 피해 산골로 숨어든 교우들의 집단촌인 이곳은 지금도 주민 대다수가 신자이다.

1944년까지는 당당하게 본당 구실을 했으나 이젠 高山본당의 공소로 격하되어 초기 천주교의 부흥에 앞장섰던 영광도 잊혀지고 우리 교우 모두의 기억에서도 사라지려 하고 있다.

錦山·珍山·高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교세를 관장하던 되재성당도 이젠 모든 교우들의 성소로 빛을 내야 할 것이다.

되재성당 뒷편엔 불란서 출신인 「라프드카드」(1881년 선종)·조쓰(1886년 선종)신부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진료과목>

내과·외과·소아과
산부인과·피부비뇨기과
물리치료



가정의학과
정신과
의학박사 이상재
전주시 덕진동 1401-19(덕진광장앞)
☎ 75-0550, 0551



두울·鮮京커피, 스완카페트
실키브라이트·훈수예품

나비커텐

성 걸 (알베르도)
김 강 (엘리사벳)
중앙동 가구점길 (에이스침매약)
☎ 82-2226.86-5611

전주 김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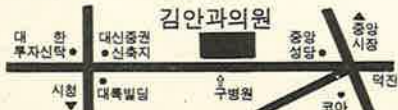
●부설: 국제콘택트렌즈·신세계안경

=진료안내=
백내장수술및
인체수체·시력
검진및 안경제
작·콘택트렌즈
눈성형



■이전장소■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중앙성당앞 구,
박승창산부인과)
☎ (0652)
85-3020.74-0760

원장 김효열 (첸리교)
전은주 (베르니가)



일분명상

나는 언제나 청년의 실패를 흥미있게 바라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의 성공의 척도가 된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후에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착한 희망을 가졌던가? 불행히 좌절해 버렸던가? 더욱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는가? 아니면 거기서 머물러 버렸던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가 결정된다.

물케
명동피부과의원

◎ 성체성년 실행표어: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나누는 정신

빈첸시오 회원들

빈첸시오 회원들...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된다. 성 빈첸시오의 정신에 따라 이웃에 대한 봉사로 시작된 자발적 활동은 애덕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1985년 6월 30일 발족된 둔울성당 빈첸시오회.
 소년가장 돕기와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자를 위시하여 보행이 어려운 혼자사는 노인을 찾아가 연탄과 쌀은 물론 빨래와 청소 부엌일을 도와드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을 돌봐주고 위로해 드린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화비의 계절에 관계 없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슈퍼마켓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금을 쪼개어 도와준다.



요근래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신자 차원에서 도와주기라고 하고 성당에 올 때 빈병 하나씩 가져오기와, 폐품수집을 위해 회장님과 회원들이 직접 리어카를 끌고 나선다. 정말 모든 신자들의 귀감이 된다. 불우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도 기꺼이 해야 한다. 그러나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희생하고 나누는 정

신, 이것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이 아닐까?!

태아에게 살 권리를!

우리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약한 태아들에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리아집(착한목자 수녀회 운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보호가 필요한 미혼여성들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봉사한다. 새로운 출발과 유산으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단체가 있지만 이 마리아의 집은 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여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숙식제공, 경제적 도움과 신앙교육, 교양교육,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문의처: 마리아의 집 (착한목자 수녀회 운영)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194번지
 전화: (0361)55-4617



▲ 남전주지구 합동미사

남전주 지구대회 및 체육대회

지난 5월 7일 남전주지구 대회 겸 친선 체육대회가 성심여고 운동장에서 열렸다. 10시 9개본당 합동미사로 시작된 이 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각 본당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더욱 다져보는 체육대회는 어린이들의 게임, 중고등부 장대넘어뜨리기, 풍선터트리기, 마지막 줄다리기, 시상식 등의 순서로 끝을 맺었는데, 자기 본당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승부욕에서 오는 몇 가지의 부작용과 잡음이 없진 않았으나 이 지구대회는 신자들에게도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 체육대회 우승은 용머리 천주교회가 차지했다.

알고 봅시다

◀ 카세트 ▶

들으며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부르는 성가는 두 번 드리는 기도라 한다. 우리는 음악이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 바쁜 일상중이라도 잠시 일손을 놓고, 음악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작곡: 주세페 그렐라, 엘비오 몬티

편곡, 지휘: 엘비오 몬티

시간: 45분

가격: 1,800원 / 성바오로 서원

▶ 서적 ▶

5인순교자 생애

전주교구 지역 교회의 초석을 놓았고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에도 본 교구와 전 한국 교회의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섯 순교자(윤지충, 권상연, 유항검, 유중철, 이순이)들의 생애가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1989. 4. 30일 발행 / 천주교 전주교구시복시성위원회 / 구입처: 홍보국

— 전주교구 시복시성 운동 —

동정부부 순교자(이루갈다, 유요한) 현양을 위한 문예 현상공모전 (교로 200만원)

모집부문

시: (편수, 매수제한 없음)

수필: 원고지 15매 내외

단편소설: 원고지 100매 내외

마 감: 1989년 7월 31일

접수처: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85-0041~3

※ 작품창작을 위한 자료제공은 접수처로 연락 바랍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첫영성체 교리시작: 6월1일 4시 부모와 함께 오십시오.
2. 성체현시와 길복: 매월 첫목요일 7:30 3. 반희정모임: 2월 10:30
4. ME장미팀: 2월 7시30분 5. 울드레아: 4일 공식미사후 6. 구역 회장 갱신: 남노송동-조옥자(엘리사벳)
7. 모내기봉사: 6월6일 8시 장소-금상리 2H M별로 2명씩 봉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반기도회 봉사자 모임: 30일 어머니미사후
9. 반기도회 순시: 매월 둘째(금)10시30-중노2가3 2시-중노가9 둘째(토)11시-인후8 셋째(금)10시-중노2가11 3시-인후13 매월 끝주(월)8시-인후1
10. ME교구대회: 6월6일 10시 해성중고강당 전원참석요망

□ 지난주 봉헌금: 650,610원 □ 교무금: 586,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 평신도 강론: 정성규(마르티노) 홍보분과 위원장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삼희: 오늘 오후 2시
3. 성모의 밤: 30일 20시 꽃, 화분, 초,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4. 제대회: 6월1일 오전 10시 5. 어머니성가대 릴레이: 6월2일 오전 11시
6. 성체강복: 6월3일 저녁미사후 7. 사목회: 6월4일 저녁미사후
8. 대건회: 6월4일 공식미사후
9. 청년회 임시모임: 오늘 저녁미사후
10. 전신자 성지순례: 6월18일 장소-베른성지
11. 사순절 저금통: 12개 48,127원 총 310개 2,020,997원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남덕 ②정운주 봉헌-이남덕 부서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강림 독서①나경섭 ②오정애 봉헌-나경섭 부서 부부
 성모의 밤 전례: 해설-황만균

□ 지난주 봉헌금: 482,270원 □ 교무금: 1,052,8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1. 제대회: 공식미사후
2. 사목회: 3일 저녁미사후
3.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성체강복: 1일 오전미사후
5. 구역미사: 1일 저녁 8:00-백암
6. 성가정회 임원개편: 회장-이춘봉 부회장-안숙자 총무-김양순 서기-임행남 *전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임 수고 하시겠습니까.

□ 지난주 봉헌금: 189,890원 □ 교무금: 125,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84-2276

1. 회의: 사목회-6월1일 오후 7시30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2. 모임: 울드레아-6월1일(목)
3. 알림: 성지순례-①6월6일(현충일)베른성지 *아침 7시 정각 출발 시간 엄수합니다. ②치명산개발현금 안내신 분 숙히 내주세요. ③오늘은 5월분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5,780원 □ 교무금: 305,0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정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희상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 성모의 밤 행사: 31일 8시30분

1. 사목회 릴레이: 6월2일 금요일
2.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전신자)
3. 성모의 밤 행사시 화분, 꽃 봉헌자를 찾습니다.
4. 성모의 밤 행사 당일 초 판매합니다.
5. 막달레나회: 오늘 공식미사후
6. 청소년봉사: 6월3일 서완산1가 동서편

□ 지난주 봉헌금: 279,010원 □ 교무금: 471,000원
 □ 신축헌금: 12,030,000원(입금 6,150,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현
 유치원 84-8347 ·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선태
 사제관 82-6232 · 82-7245 사목회장 안득수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 성전보수헌금 바랍니다. 89년도 교무금 신임바랍니다.

1. 성모의 밤 행사: 31일(수) 저녁 7시30분(전신자 참석요)
2.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3. 성체대회 뱃지 및 스티카 판매: 뱃지 1,000원(전신자착용) 2,000원(차량용)
4.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 울드레아-오늘 공식미사후
5. 24시간 성체조배: 6월1일 저녁미사후부터 6월2일 저녁미사전까지
6. 예비자 교리안내: 주일반-오전 11시 40분(강당) 목요일반-저녁 8시 10분(강당) 금요일반-저녁 8시 10분(강당)

□ 금주보수헌금: 810,000원 □ 현재모금총액: 27,504,610원 □ 금주보수비헌금: 1,350,000원 □ 현재모금총액: 157,486,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1. 오늘: 헌혈이 있습니다. 2. Cu회의: 오늘 오후 3시
3. 사목회: 6월3일(토) 오후 8시-사제관
4. 구역장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후
5. 신축금입금: 이정문 10만원 이종근 10만원
6. 성가대 연습시간: 어머니성가-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청년성가-매주 수요일 저녁미사후
7. 울젠기금모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구역장 옥외행사에 협조해 주신분께 감사할 드립니다.
9. 금주전례: 해설-문치구 복사-오수환 심광섭 봉헌-김나섭 부서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연희 복사-함문권 서영상 봉헌-김광택 부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33,720원 □ 교무금: 543,000원
 □ 신축금입금총액: 146,009,836원 □ 울젠기금입금총액: 3,400,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 오늘은 성체 성월 대축일입니다.

1. 축 첫영성체(영세)어린이들 2. 베른성진순례꽃동네방문: 6월11일(일) 아침 7시 출발 참가비 6,000원 속히 신청바람 3. 신자 가정사목방문: 금주-세경A 차주-평년연립, 우체국주변(가족 사진준비바람)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일-9:30 수(후)-7:30
5. 모 임: ①꾸리아-10:30(교육관) ②구역봉사자모임-다음주 수요일 11시 ③안나회-다음주 일요일 11시미사후
6. 만남의 방을 애용합시다. 성당 도서실을 애용합시다. *도서기증 바람
7. 감사: 가족성가 경연대회 참가가족들과 성가대
8. 청소년: 금주-광진A 차주-서부거성A
9. 오늘부터 성당 재판공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지난주 봉헌금: 796,530원 □ 교무금: 1,171,00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수녀원 87-0711

※ 6월은 예수성심 성월입니다.

1. 오늘은 나눔의 주일입니다. 2. 돌담회 릴레이: 오늘 오후 6시
3. 성모의 밤 행사: 29일(금) 오후 8시
4. 여성분과 릴레이: 2일(월) 10시 미사후
5. 안심리 공식미사: 2일(금) 오후 7시30분
6. 교무금은 매월 정성껏 봉헌합니다.
7. 가정방문: 30일(화) 신주2반 1일(목) 오후 평화 성원 연화
- ※ 축 헌배성사: 신랑-박종길 신부-한미숙 오늘 12:30 효자성당

신랑-최철호 신부-양용정 오늘 13:30 전통성당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정봉구 ②김옥남
 기도-박천운 임선재
 차주전례: 해설-한병갑 독서①송하영 ②한명희
 기도-강진상 정명순

□ 교무금: 531,000원